“좋고 싫음 늘 똑같아…항상 감정 살펴야”

진우 스님, 6월 15일 용문사서
자립준비청년 13명에 가르침
“내 마음구조 알아야 미움 없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6월 15일 양평 용문사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마음의 평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설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양평 용문사에서 청년들을 만나 특별한 가르침을 전했다. 총무원 사회부가 6월 15일 양평 용문사(주지 도일 스님)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웃과 함께 희망을 나누다’ 템플스테이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마음의 평화,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설했다.

이날 템플스테이에는 용문사 주지 도일 스님과 사회부장 도심 스님, 사서실장 진경 스님, 총무국장 무일 스님, 사회국장 진효 스님 등이 참석했으며 자립준비 중인 20대 청년 13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 가운데 불자는 없고, 템플스테이를 경험한 청년도 한 명 뿐이다. 불교는 잘 모르지만, 호기심과 호감으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청년들은 범종체험, 캠프파이어 등을 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간략하게 조계종단을 소개한 후 청년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지에 일일이 답을 했다. 청년들은 스님들 일상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평소 자신의 고민들을 토로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족들의 잔소리를 점점 견디기 힘들어하는 심정,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며 이간질 당하는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스님에게 조언을 구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좋고 싫은 분별에서 벗어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중도심을 통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 청년에게 진우 스님은 “왜 미운 마음이 생길까” 하고 질문하며 “사람이 나빠서 미워하기보다, 마음의 구조로 인해서이기도 하다”며 “마음 구조를 알아야 왜 미움이 생기는지 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스님은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내 감정을 살피라”고 강조했다. “이 일이 좋고 싫고,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나 그 때 내 감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봐야 한다”며 “감정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싫고 기분 나쁜 감정, 괴로운 감정은 내가 과거에 또는 전생에 행복했고 기뻤고 좋았던 질량만큼, 괴롭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일문일답 후 스님은 청년들과 서원지를 쓴 후 용문사 은행나무로 장소를 옮겨 서원지를 달고 기념촬영을 했다.

자립준비센터를 통해 템플스테이 소식을 접한 20대 중반의 두 청년은 1박2일 동안 사찰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범종체험에서 울림을 느낄 수 있어 좋았고 캠프파이어에서 주지스님과 나눈 이야기가 특별했다“면서 “행사 후에 템플스테이 체험권을 선물 받았는데 친구와 함께 오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원장스님이 감정 조절을 잘 하면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 말씀이 정말 와닿았다”며 평소 고민하던 것들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청년은 “사찰에 오니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 시간 되면 또 오고 싶다”며 “특히 108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럿이 함께 해서 그런지 결국엔 108배를 다 해서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분향소 운영 종료

사노위 등 4대종교 추모의식
499일 만에 ‘별들의 집’으로 이전



서울광장에 있던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가 설치 499일 만에 운영을 종료하고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내 4대 종교 관계자 등은 6월 16일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에서 ‘4대종교 추모 의식’으로 운영 종료를 알리고,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에 새로 마련된 ‘별들의 집’으로 분향소를 옮겼다.〈사진〉 별들의 집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 운영에 들어간다.

추모 의식은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불리자 그리움에 유가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개신교, 원불교, 가톨릭, 불교 순으로 기도 의식이 진행됐다. 기도에는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진상규명을 발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

사노위원 고금 스님은 “억울한 죽음에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비록 시청 분향소는 옮기지만 국민과 저희는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알고 가족들의 고통을 알기에 책임자를 밝히고, 진상을 밝혀 조금이나마 그 한을 푸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대원상’ 등 4대 공모사업 실시

시대 맞는 불교 진흥 목표로
학술 · 콘텐츠, 청년불자상 등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2024년 하반기 4대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2023년 제정돼 매년 시상하는 ‘대원상’을 비롯해 청년불교 활성화와 불교 관련 학술·콘텐츠 연구 개발 지원을 위한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과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 풀뿌리 불교 중흥을 위한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21회차를 맞은 ‘대원상’ 공모는 사회활동, 강연, 콘텐츠 제작, 저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 활동을 펼치는 출가자와 재가자 개인·단체를 시상해 현대 사회에 적합한 포교 방법을 창출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다. 출가부문(개인/단체), 재가부문(개인/단체), 특별 정진상(조계종 소속 해외 유학승 2명) 부문으로 공모하며, 상금은 대상 3000만원, 특별상 1500만원, 장려상 1000만원, 특별 정진상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진흥원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9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는 전국 곳곳에서 불교 진흥을 위해 큰 원력을 펼치고 있는 단체를 발굴해, 꾸준히 불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각 기관·단체에는 200~50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6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초·중·고·대학·대학원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장학금 및 활동비를 지원, 불교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9기 대원청년 불자상·동아리상 공모’는 7월 1부터 26일까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접수받는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개인에게는 300만원 장학금이, 초등 불교동아리에 50만원, 중·고등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 대학·대학원생 불교 동아리에 150만원이 지급된다. 불교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도 50만원을 별도 지원한다.

‘제10기 대원불교 학술·콘텐츠 공모’는 불교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단체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교 학술 저서’ 부문에는 500~1200만원을, ‘번역서’ 부문에는 300~1000만원을 지원한다. 만화, 동화, 불교 다큐멘터리,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불교 콘텐츠 부문에는 500~1000만원이 지급된다. 공모 희망자는 7월 22일부터 8월 23일까지 이메일(kbpf2606@daum.net)로 제출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서울시의회 화엄회 “부처님 법 수호” 다짐

6월 17일, 조계사서 정기법회
20여 명 참석…우봉 스님 지도법사
“선업으로 서울 발전 기여해달라”


정기법회에서는 지도법사 우봉 스님 집전으로 천수경 봉독과 관세음보살 정근이 진행됐다.

서울시의회 불자회인 화엄회가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수호할 것을 서원했다.

화엄회(회장 남창진)는 6월 17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불자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우봉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정기법회는 천수경 봉독과 관세음보살 정근 등 30여 분간 진행됐다.

지도법사 우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업장 소멸을 위한 선업’을 강조했다. 우봉 스님은 “줄기차게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부처님 가피가 따를 것”이라며 “공직에 있는 여러분이 세세생생 보살도를 행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업을 줄이고 선업을 강조한 스님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선업”이라면서 “시민의 이익을 위해 사심 없이 보살도를 행해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불자의원들은 부처님 가르침 수호로 불법홍포에 앞장서며 선업을 쌓아나갈 것을 다짐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 남창진 회장은 “함께 뭉쳐 자주 모이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며 정진하자”면서 “부처님 법을 수호하며 선업을 쌓아가자”고 강조했다. 불자회 고문 최기찬 의원은 이날 법회에 대해 “선업을 쌓으라는 지도법사 스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삼아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다짐을 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홍국표 의원은 “매일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다”면서 “부처님 가피 덕분에 잘 살고 있다고 생한다. 항상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잘 전하는 불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1년 창립한 화엄회는 서울시의회 불자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신심과 원력으로 정기법회와 템플스테이 등을 이어오고 있다. 임은호 기자



